

오바마, 9.11 현장 모스크 건립 관련 발언 논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11 테러 현장 모스크 건립안과 관련한 모호한 입장 표명으로 반목을 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모스크 건립안에 대한 입장을 하지 않아 왔으나, 최근 건립안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발을 의식한 듯 다시 발언의 의미를 축소하고 나와 ‘말 바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이하 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미국 내 무슬림 지도자들을 초청해 가진 이

프타(라마단 기간 중 해가 진 후 하루의 단식을 마무리하는 식사) 자리에서 “미국 시민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 나라에서 무슬림들이 그들의 종교를 실천할 동

사실상 지지 발언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

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라며 “이러한 권리는 로워 맨하탄에 있는 그들의 사유지에 이 지역 법규에 따라 예배 장소이자 커뮤니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곳은 미국”이라며 “종교 자유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건립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과 외신들에 의해 일제히 보도됐다.

하지만 보수층이 즉각적으로 거세게 항의하고 나서자 하루만

인 14일,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단지 종교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을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그라운드제로 인근 모스크 건립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고 앞선 발언이 갖는 의미를 축소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모스크 건립안과 관련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손현정 기자)

광복절 기념 “이제는 민족의 영적 해방위해 쓰임 받도록”

남가주, 동부, OC지역 등 교회연합으로 8.15 기념식 가져

“하나님, 65년 전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의 해방을 허락하십시오. 이제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여 이 민족의 영적 해방과 부흥을 위해 쓰임 받게 하소서.”

한국교회 8.15 대성회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가운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지용덕 목사)에서도 광복절 제65주년 기념 연합 감사예배를 중현선교교회에서 드렸다.

예배는 지용덕 목사의 인도, 하기언 장로(남가주장로협의회 회장)의 기도, 남가주장로성가단(지휘 이정욱 교수), 연세콰이어(지휘 이

영두 교수)의 특별찬양, 민종기 목사(중현선교교회 담임)의 환영 인사, 최학량 목사(남가주교회 협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 설교를 전한 한기총 가정사역위원회 위원장 정도출 목사(비전교회 담임)는 ‘꿈꾸는 것 같았다(시편 126:1~6)’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정 목사는 이스라엘이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갔다 해방됐던 과정을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렸다. 또한 정 목사는 “이제 세계 한민족이 연합해 민족과 사회, 세계의 영적 해방을 위해 쓰임 받도록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 3면에 계속

“영혼구원 올인하면 교회부흥 안 될 수 없다!”



예장 대신 총회 작은교회살리기 20만 전도운동 미주대회 중 강사로 초청된 박재열 목사(동선교회 담임, 대신 총회장 대행)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린 부흥성회 중 불신자 영혼 구원을 통한 교회 부흥에 올인하라고 강조했다. ©지재일 기자

“영혼구원 올인하면 교회부흥 안 될 수 없다!”

대신 총회 작은교회살리기 20만 전도운동 미주대회 성황

“알곡 알곡 알곡이 되자!”
“교회내 알곡 10명만 있으면, 500명 교회 충분히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 전

도, 예배, 헌금, 봉사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자”
예장 대신 총회 작은교회살리기 20만 전도운동 미주대회 중 강

사로 초청된 박재열 목사(동선교회 담임, 대신 총회장 대행)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린 부흥성회 중 불신자 영혼 구원을 통

한 교회 부흥에 올인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알곡의 축복(마 3:12)’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한 박재열 목사는 “교회내 10명의 알곡 같은 의인이 세워지면 500명 교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며 “성도들에게 모두 알곡이 되라”고 강조했다.

▶ 4면에 계속

社 告

미주 최초 의료포탈 라파메디 오프라인신문 창간

의료포탈 ‘라파메디’ 오프라인신문을 창간합니다. 라 파 메 디 (w w w . r a p h a m d . c o m) 는 기독일보

인터넷 콘텐츠 개발팀에서 자체 개발한 미주 최초 의료포탈입니다. 라파메디는 유용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미국과 한국의 각 전문병원 및 의료기관과 독자 간의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일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제2회 KODIM 이민목회자 서부지역 컨퍼런스 2010

2010. 10.18(월) - 20(수) 2:00 PM

주제 이민교회 세우기, “또 교회 세우기?”

2008년 제1회 컨퍼런스는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의 빌리그래함센터에서 200여명의 이민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민 사역자 세우기”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제 2010년 제2회 컨퍼런스는 “이민교회 세우기”라는 주제로 서부지역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소규모로 진행되며, 주 강사들의 전체강의와 코디머들의 분야별 workshop, 그리고 참석하시는 사역자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건강한 교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대형교회 중심의 성공적인 이야기보다는 소형교회 중심의 아픔과 고민을 나누며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 꿈꾸는 사역자와 섬기는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장소: 선한목자장로교회 (Korea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 Desire Avenue, Rowland Heights, California 91748 (L. A. 근교)
Tel: (626) 965-3443 http://sunhanchurch.com

대상: 이민교회에서 전임(Full-Time)으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부교역자도 해당됨)

접수: 선착순 50명 (8.31일까지) (www.kodim.us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등록)
접수시, pay to "KODIM" check, 최근 주보1장,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등록비: \$100.00(숙박을 위한 호텔이 필요한 경우, 2인1실 2박에 \$50추가하여 \$150를 보내주세요)

문의 및 접수: 늘푸른선교교회 (구경모 목사, Tel: 714-743-3402)
Mission Community Church (Kodim)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p>주강사 림형천 목사 (나성영목교회)</p>	<p>분야별 주제 및 강사 "이민교회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창조영성" - 오정택 목사 (L. A.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p>	<p>"이민자(교회)와 선교에 대한 성서 & 신학적 접근" - 김신일 목사 (달라스 연합교회)</p>
<p>주강사 박광철 목사 (조이벨로교회)</p>	<p>"이민교회 성도를 위한 치유와 상담설교" - 권석균 목사 (아들란타 지주교회)</p>	<p>"이민교회의 차세대 목회전략" - 김성찬 목사 (버팔로 세스망장로교회)</p>
<p>주강사 고태형 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p>	<p>"이민교회 셋팅에서의 효과적인 전도전략" - 최성은 목사 (새워빌 다리눔교회)</p>	<p>"인터넷을 통한 한인교회의 네트워크 선교 전략" - 김동욱 목사 (앤버 한인교회)</p>
		<p>"이민신학: 이민목회를 위한 삼위일체론적 접근" - 구경모 목사 (L. A. 늘푸른선교교회)</p>

KODIM
Korean Diaspora Ministry

주최 : 코딴(KODIM, KOREAN DIASPORA MINISTRY, WWW.KODIM.US) - 멘토 그룹 : 한기홍 목사, 정인수 목사, 박광철 목사, 고태형 목사
- 코디머(전문위원) : 오정택 목사, 최성은 목사, 권석균 목사, 구경모 목사, 김성찬 목사, 김신일 목사, 신현철 목사, 박연담 목사, 김동욱 목사

美 가주 동성결혼 금지법 폐기 무기한 보류

■ SF 항소법원, “심리 기간에는 법적으로 유효” 판정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동성결혼을 금지시킨 주민발의안 8호(Proposition 8)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16일(현지 시각), 주민발의안 8호의 위헌성을 심리하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발의안이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발의안 폐기를 무기한 보류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4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본 위커 판사는 주민발의안이 사적인 도덕 기준에 근거해 동성 커플들이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으므로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발의안이 즉각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명령한 그는, 동성결혼 반대자들에 의해 항소 절차가 예고된 데 따라 항소법원이 사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폐기를 18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었다.

즉 이번 항소법원 결정에 따라 18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결혼이 재개될지 또는 무기한 미뤄질지의 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8년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림으로써 총 1만8천여 쌍의 동성커플에게 결혼증명서가 발급됐지만 같은 해 11월, 주 헌법상 결혼의 정의를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으로 규정하게끔 하는 주민발의안 8호가 52% 지지율로 통과되면서 동성결혼이 또 다시 금지된 바 있다.

위커 판사의 위헌 판결로 힘을 얻은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발의안을 즉각적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해 왔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지사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발의안이 즉각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법원 판결로 발의안은 당분간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동성결혼이 다시 시작되지 못하도록 효력을 지속할 전망이다.

미 북음주의 가정운동 단체인



전통적 결혼 지지자들이 지난 15일 워싱턴DC에서 시위를 개최하는 모습. ©크리스천포스트(CP)

패밀리리서치카운슬(FRC)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이번 항소법원 결정에 대해서 “진실한 결혼뿐 아니라 법의 정의를 믿는 캘리포니아 주와 미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일을 했다”고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보류 명령과 더불어 이 사안의 신속한 심리를 합의하고 동성결혼 찬반 측에서 각각 제출한 서류 검토

를 거쳐 오는 12월 재판을 열 것이라고 공고했다.

주민발의안 8호를 위헌으로 규정한 위커 판사의 판결은 연방법원에서 동성애와 관련해 나온 판결 가운데서도 가장 급진적 성향의 것으로, ‘결혼은 단지 법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 체계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수 교계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자신들이 사는 주에서 동성결혼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간과했다고 보수 교계는 지적하고, 전통적 가치를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민발의안 8호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현정 기자)

1년 365일 휴가도 없이 달리는 목회자는 수퍼맨?

물 설은 타향, 사람이 그리운 이들이 모여 드는 곳 ‘한인교회.’ 바쁜 이민사회 하루 밥 벌이 하기도 빠듯한 이민자들 속에서 그 만큼의 헌신과 치유의 사명을 지닌 목회자들은 어디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있을까?

최근 미국 교회 목회자 중 남

는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조니 헌트 담임목사를 기다려왔던 교인들의 아쉬움은 커졌지만, 그만큼 담임 목사의 입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휴가가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 교회 목회자들에 비해 한인교회

휴식을 취한다는 게 양심에 거리가 된다”며 휴가를 반납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휴가를 반납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욱 헌신적인 사역을 다짐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다.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휴가를 가지 못

제가 생길 것이라는 염려 ▶주변 목회자들의 헌신적인 목회와 비교가 돼 가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헌신적인 목회를 하려면 쉬 수 없다는 업무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미국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목회자들의 휴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이다.

▶목회자 탈진, 심지어 극심한 건강 문제도 야기

한인교회의 경우, 교회를 개척한 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휴가도 가지 않고 목회를 강행군 하다가 탈진이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위장병, 고혈압 등 지병을 하나씩 안고 있는 것도 목회에서 오는 육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제때 풀어주지 못해 발생하는 경

우가 다반사다.

목회자가 쉬지 않고 계속되는 업무를 감당할 경우 ‘감정적 소진’이 발생해 능력이 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피로가 누적돼 심하면 갑자기 (지병 혹은 건강상 문제로)사망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한다.

▶목회자의 쉼, 교회 전체 수준을 높이는 길

지역 목회자들에게 묻은 결과, 목회자의 휴가는 단순히 노는 것이라는 개념을 넘어, 교인 전체를 위한 재충전의 기간이라는 인식이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

에틀렌타중양성결교회 장석민 목사(에틀렌타교회협의회회장)는 “본인의 경우 개척하고 1년이 지난 후 교회에서 휴가를 주어 1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 휴가지에 다녀왔다. 교회 설립 후 안정된 목회를 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는데, 휴가를 통해 정신적 심리적

으로 편한 마음을 갖게 된 경험 이 있다”고 말하면서 “휴가를 통해 육적인 휴식과 더불어 교회성장을 위한 단기, 장기적 목회구상을 하게 되었다는 점 등 발전적 요소가 있었다”고 했다.

목회 16년 차로 최근 3주의 안식을 가지고 한국에 다녀온 정인수 목사(연합장로교회)는 ‘안식의 은총’이라는 칼럼을 통해 “목회의 치열한 상황을 벗어나 자연과 교감을 통해 혹은 여행이나 배움의 시간을 통해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말하며 “이민의 삶, 쉼도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지만, 목회자에게 피로 증후군이 몰려오면 교인들에게도 영적 유익이 되지 못한다. 잠시 숨을 돌리며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방향성을 다시 성찰할 수 있다”고 안식의 유익을 설명했다.

(권나라 기자)

목회자의 쉼, 교회와 사역에 오히려 큰 도움

침례교컨벤션 회장을 두차례 지냈던 조니 헌트 목사(조지아 퍼스트우드스탁침례교회)는 한 달 간의 안식 월을 가진 후 6주간의 추가 안식 기간을 가지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됐다.

이유는 본인과 가족의 육체적, 정서적 소진으로부터 회복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휴가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교인들도 못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한인교회 P목회자는 “성도들은 쉬지 않고 매일 열심히 일하느라 휴가도 못 가는데, 성도들이 현금한 현금으로 휴가비를 받아

하는 이유 ▶바쁘게 일하며 쉬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미안하고 눈치 보여서 ▶개척교회나 교회 재정이 어려워 목회자의 교육 혹은 휴가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가지 못하는 경우 ▶담임목사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본인이 없으면 교회에 문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지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법률그룹으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상법 / 소송

- ▶ 민사 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
- ▶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 회사 설립, 계약 위반

파산법

-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 신용 문제 상담

이민법

-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 종교비자&종교이민, 가족이민
-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이문규 법률그룹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IRVINE 949-442-8370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904호
822-510-5200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93년)
-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 연방법원 및 세법관할 정회원 변호사
-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 미주 상공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 국제 Law Firm Couderc Brothers 근무
-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외 수천 건 해결

▶ 1면에 이어

축사를 전한 지용덕 목사는 “광복 65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경제대국, 스포츠강국, 그리고 선교대국으로서 한민족이 개인과 가정, 민족과 국가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이정현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민족 해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듯, 이민사회 영적 해방과 부흥을 주시리라 믿는다”며 “교협과 목사회가 항상 기도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고 말했다.

영상으로 축사를 보낸 이광선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한국교회는 시대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 민족이 깊은 영적 고갈 상태에 있음을 직시하고 한인 성도들이 연합해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하나님, 이민교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미국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특별기도 시간에는 남가주교협 부회장들이 기도를 인도했다.

세계비전교회 담임 김재연 목사는 ▲조국의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해,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남가주교협은 8.15 기념 연합 감사예배를 충현선교교회에서 드렸다.



동부교협은 8.15를 기념해 찬양예배를 드렸다. 예배에 함께한 동부지역교회 목회자들과 박희민 원로목사(가운데).

엄규서 목사는 ▲미국의 신앙 부흥과 경제회복을 위해,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는 ▲이

민교회의 부흥과 동포사회 번영을 위해,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는 ▲동포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했다.

동부교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일’

LA 동부지역 교역자협의회(회장 강일용 목사)역시 8.15 광복기념예배를 동부지역교회 연합 찬



OC교협 2세들과 함께하는 광복기념예배를 드렸다.

양예배로 드렸다. 15일 유니온교회(담임 문병용 목사)에서 드려진 연합 찬양예배는 동부지역교회 연합찬양팀이 인도했으며,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

가 ‘광복의 감사의 과제’(본문 109: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희민 목사는 “광복으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수립된

것과 6.25 동란에서 민족을 지켜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며 “이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

는 나침반교회성가대, 남가주빛나리교회성가대, 은혜한인교회 할렐루야성가대, 은혜성가대 등이 참여한 은혜로운 성가곡들을 불렀다.

(지재일 기자)

‘독립의 감격과 기쁨을 자손만대에’

350여명의 LA 한인들이 조국을 향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65년 전 독립의 감격과 기쁨을 자손만대에 전하자’라는 주제로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5일 영생장로교회에서 개최

로 행사가 진행됐다.

김혜성 회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다”며 “우리가 얻게 된 이 자유를 두 번 다시 빼앗겨선 안 되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자유

연설에서 “지난날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비추어 봐야 한다”며 “우리 마음 가득 대한민국의 앞날을 향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건국 62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가 꿈꾸는 나라와 사회가 과연 어떠한 사회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성숙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김춘식 LA 상공회의소 회장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을 기리며, 독립유공자와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향군인회의 합창과 참석자 전원이 광복절 노래를 합창했다. 마지막 순서로 박장원 목사의 축도와 미주 광복회 명예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영창 목사의 만세삼창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박상미 기자)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회장 김혜성 목사

재향군인회, 350여 한인들과 8.15 기념식 가저

된 이번 광복절 기념식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회장 김혜성 목사)와 새 로스앤젤레스 한인회(회장 박요한)가 공동 개최했다.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행사가 개막, 한국과 미국 양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용사를 기리는 묵념 순

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는 자유를 얻었으나, 오늘날 북한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기 짝이 없다”며 “북한 동포들도 자유를 얻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마음을 모아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종식 (예)육군 소장은 기조

이어서 박요한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땅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지역의 중심에서 서서 민족의 지경을 넓혀가야 한다”며 주류사회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주류사회를 이끌어가는 한인들이 되길 당부했다.

또한 박 회장은 “광복 65주년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지난 1700년 동안 교회가 잘못 사용한 선교의 개념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선교의 원형을 회복하여 교회가 참으로 기아할 진정한 선교의 길을 제시한 혁명적인 저서로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가 함께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방동섭 목사의
최저의
신언!

왜 이 책이 중요한가?

- “이 책은 강추가 아니라 강강추를 하고 싶은 책이다.” -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대표)
- “선교의 종교개혁적 저작이라고 불러서 지나침이 없다.” - 유관지 박사(북한교회연구원(NCRC) 원장)
- “선교의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책은 지금까지 한국 신학계에 없었다.” - 김성욱 박사(홍신대 선교대학원 교수)
- “선교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책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책이다.” - 김학유 박사(함동신학대학원 교수)
- “21세기 신학계에 가장 의미있는 저서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신경규 박사(교신대학교 교수)
- “누구나 선교를 말하려면 이 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김홍만 박사(국제신학대학원 교수)
-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지고 가서 매년 1번씩 읽어야 할 책이다.” - 오준문 선교사(삼보디아 선교사)
-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늘 길을 닦는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제공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 이길소 선교사(Global Vision Foundation 대표)
-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왜 모든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게 되었다.” - 신종철 선교사(GMC 지구촌선교공동체 대표)

● 구입처: LA기독교서점, 미주성산교회 T. 213) 975-1111, E-mail: dongsubbang@gmail.com

“죽어가는 영혼 위해 전도하는 열정을 가지라”

영혼구원과 교회부흥.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주님의 명령이다.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하는데 주력하기 보다, 현실과 타협해 전도의 어려움 앞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교회의 현실이다. 한국작은교회살리기운동본부장 박재열 목사는 불신자를 보고도 무감각한 교

대신총회 40만(해외 교회 합산) 성도의 절반인 20만 불신자를 전도해 60만이 되도록 하자는 뜻에서 20만을 목표로 삼았다.

교단 분쟁 와중에 이 운동을 하다 보니 분쟁이 오래갈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운동 때문에 분쟁이 그치고 합의가 이뤄져 전도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보통 부총회장이 1년 후 총회장이 되는데 20만 전도운동은 1년이

교단 및 교파를 초월한 중소도시의 미자립 작은 교회(출석 30명 미만)를 선발해 매달 30만원(현금, 물품)과 매월 정기 세미나, 목회 보고서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내년에는 한국 작은교회 150개를 뽑아서 전도훈련 1시간 강의 한 후, 목회자 부부가 전도해서 1시간 안에 1명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지원금 30만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한다. 훈련 서약서에는 목회자 부부가 함께 하루 4시간, 1주일 5시간 함께 전도했는가?, 현재 성도수가 10명, 20명이라면 명절, 휴가 반납할 것, 1달에 5명 교인등록을 해야 한다. 이것을 미주 한인교회에서도 현지에 실정에 적합하게 접목해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하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기를 바란다.

-농촌교회 살리기 운동에 대해 말해달라.

농촌교회를 살리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농촌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다. 시골교회 대부분 목회자들의 의식이 교인 10명, 20명 데리고 있으면서 도시에서 보조 받아서 사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영혼구원의 사명을 외면한 죄다.

어떤 목회자는 시골 100명 사는 동네에서 90명을, 200명 동네에서 150명을 전도했다. 2년에 한 번씩 6천만 원이 필요하고 교회 부채가 40억 넘어도 그것을 계속



박재열 목사.

하고 있다. 농촌교회 세미나 후 1년에 한 번씩 세례 많이 준 교회를 위한 시상식도 마련된다. 100명 되는 교회가 20명 이상 세례되면 500만원을 시상한다.

-전도운동에 매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본인은 신학교 시절 당시에 전철 안에서 전도를 하곤 했다. 서울에 교회 세우면서부터 지방 작은 교회들이 개척 시작하면 10만원 월급 중 2만원을 하나 둘 택해서 지원했다. 점차 교회가 성장하면 서 돈 많이 됐는데, 돈으로는 부흥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고 기 잡는 법과 낚시대, 미끼, 간식 키자,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가 공멸하니까. 하천이 마르면, 강이 마르는 법이니가 전도운동 계

속하는 것이다.
-미주 이민교회 대부분이 작은 교회들이다. 작은 교회들이 비단 교회를 살릴뿐 아니라 동성애, 무슬림 확산, 성도들간의 불화합, 2세들의 신앙 전수 등의 도전 앞에서 미국의 각 지역과 사회, 나라를 살리기 위한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첫째 날 13일 부흥회 내용이 알곡의 축복에 대한 것이었다. 알곡은 환란과 핍박, 불행이 와도 오히려 더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다. 둘째 풍요와 물질이 있어도 세상 시류에 떠내려가지 않고 헌신으로 인해 해마다 5명~10명 이상 예수님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됐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영혼구원에 집중한다면 교회가 왜 부흥 안 되겠나? 문제는 영혼구원에 몰입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와 영혼구원에 집중하면 부흥은 그 다음의 마땅한 결과다. 하나님 중심을 벗어나니 동성애, 교회내 싸움, 재정문제 등 문제와 갈등이 파생된다. 교회는 결국 영혼 구원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미주 작은교회 목회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큰 교회도 작은교회에서 시작된 것이니 작은교회도 결코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작은교회 그대로 있지 말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많이 전도해서 작은교회가 작은 유람선이 아니라 불신자 영혼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어서 죽은 영혼 가득 채우도록 하면 구원의 역사 일어나리라 확신한다.

지속 가는 멸망의 영혼들 그냥 놔두는 게 문제다. 그 영혼들을 인도하면 작은교회는 자연히 영혼구원 대 교회가 커지는 것이다. 작은교회도 큰 소망을 가지라. 작은교회 아름답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영혼구원하지 않은 채 작은 유람선 모양으로 유지하는 것은 결국 죄다. 불행히도 작은 유람선이 99.5%인 것 같다. 이것이 물질문명으로 인한 세계적인 현상인데, 작은교회가 영혼구원에 집중하면 전체 교회가 함께 살아난다. 크리스천들이 멸망으로 가는 불신자들에게 대해 아무 감각이 없는 시대 됐다. 죽어 가는 영혼에 대해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 죽어 가는 영혼 위해 복음 전하는 열정을 가지라.

(지재일 기자)

한국작은교회살리기운동본부장 박재열 목사

회들을 깨워 작은 '유람선'을 '구원선'으로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박재열 목사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개최된 예정 대신 총회 작은교회살리기 20만 전도운동 미주대회 강사로 초청돼, 작은교회 목회자들이 영혼구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아래는 박재열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

-대신 총회 20만 전도 운동 미주대회 개최된 동기는 무엇인가.

대신 교단 소속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이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20만 전도 운동을 통해 함께 교회가 성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만 전도운동을 목표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라 계속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일을 하고 있다.

-작은교회살리기 20만 전도운동은 어떻게 진행됐나?

동선교회에서 2002년부터 15개 교회를 시작으로 2010년에 140개 교회를 선정, 한국작은교회살리기운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140개 교회를 지원했으며 지원한 교회는 목회사관훈련을 시켜 50명 미만 교회들을 지원했다. 1년에 400만원, 매년 4억을 작은교회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교회에는 40억의 부채가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작은교회들을 살리는 일이 곧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

-목회사관훈련은 어떻게 하나?

▶ 1면에 이어

“그렇다면 알곡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반문한 박재열 목사는 “환란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쾌락주의,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은 믿음의 사람, 힘들수록 예배, 전도, 봉사에 더 헌신하는 사람이 알곡 같은 사람”이라며 기록한 삶으로 항상 성령 충만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많은 교회가 돈에 매여 교회가 갈라지고, 목회자들도 안일주의에 빠져 편하게 살려고만 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려면 톱

으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고 오늘날 예수 믿기 이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이 많습니까? 목회자들이 먼저 영적 각성하여 세상 시류 속에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길 바랍니다.”

“알곡 같은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사람”이라며 박재열 목사는 1년에 2,000여명 전도가 되고 있는 동선교회의 사례를 소개했다. “교인들이 자주 남의 교회 교인을 전도해서 전도상을 없애고 구역마다 세례 5명 이상하면

상을 준다고 했더니 20여 구역 이상이 각각 5명을 세례주고 성도 9명이 각각 10명 이상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희생한다면 전도는 반드시 된다”라고 말한 박 목사는 이웃집 사는 60년 불교신자를 식사나 봉사로 각별히 섬기며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전도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교회 모 장로님이 기도하는 중에 꿈을 꾸었는데 천국에서는 세상에서 전도하다가 핍박 받은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이번 기회에 쪽정이 같은 삶 회개하고

열매 맺는 알곡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부흥 안 될 수 없다” “영혼구원에 몰입하면 교회부흥 안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6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지용덕 목사가 작은교회살리기에 헌신한 박재

열 목사에게 특별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가주 교협은 올해 박재열 목사를 초청해 남가주 작은교회를 살리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재일 기자)

-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가 없으세요?
-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uente Hills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하늘 주의 권능으로 치료받는 광선 치료의 역사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

치료의 광선은 주님의 능력이며 주님의 권세이다

신유대성회

8월 15, 22, 29일 1시30분pm

영광빛복음교회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 심한 내치질과 출산 후유증의 산후풍과 심한 빈혈에서 한번의 안수로 치료 받았습니다-조영주 권사
- ▶ 척추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하반신 마비가 되는 병에서 목사님의 안수로 치료 받았습니다-김희숙 권사
- ▶ 교통사고로 수술도 못하는 무릎 속의 파손과 무릎 통증의 고통에서 목사님의 안수로 깨끗이 치료 받았습니다-김은주 전도사
- ▶ 신생아 이형주의 뇌출혈과 심한 황달병을 치료 받았습니다-아기엄마 이호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강사 목사님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97가지
성령의 은사와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는 성회입니다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지금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 강사
우대권 목사

영광 빛 복음 교회 담임
한미음 교회 담임
21세기 목회자 영성 훈련 세미나 강사
동광 금초대기도원 원장
대한민국 현대 인물사 수록
저서-이름답고 신비한 영광 극치의 천국
의 24권

문의전화 (714)833-2568

1200 W. Alvarez Ave.,
Orange, CA 92868

월드크리스찬신대학교 100% 장학금 가을학기생 모집

이모세 총장 "열정 가지고 목회하도록 적극 지원"

월드크리스찬신대학교(총장 이모세 목사)가 2010년 가을 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대학부는 100% 장학금을 지급하며, 대학원은 선착순 30명에 한해 \$1000 장학금을 지급한다.

BPPVE와 ABHE 인가를 받은 월드크리스찬신대학교의 대학부는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종교음악과 등이며, 대학원은 목회학, 기독교교육학, 종교음악이다. 또한 박사원은 신학, 목회학, 종교음악, 기독교상담학, 기독교신학과, 철학 등이다.

이밖에도 평신도 학부가 있어 30학점만 이수 후 졸업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되면 수료증(Diploma)을 받을 수 있으며, 통신학부를 통해 본 대학의 대학부와 대학원과정의 학위를 이수할

수 있다. 월드크리스찬신학대는 SEVIS(I-20 form)를 자체 발행하며, ESL 유학생 비자를 무료로 변경해 준다.

총장 이모세 목사는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남다르며 목회에 열정을 가진 분들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학교"라며 "공부를 원하는 분들에게 100% 장학금을 지급함은 물론이며 졸업 후 100% 사역지를 연계해 준다"고 밝혔다.

월드크리스찬신대학교는 1903년 미국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의해 설립된 학교를 모태로 삼고 있다. 이들은 독립운동을 하며 학문과 신앙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설립 하였고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했다. 이후 남가주 교육국과 연방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1999년 7월 20일 현재 이름으로 개교했으며, 2004년에는 정식 학위수여 인가도 받았다.

월드크리스찬신대학교에서



이모세 총장

M.Div를 마친 학생은 미국예수교장로회의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 예장합동(총신) 목사고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미국예수교장로회의 소속 목회자는 예장합동 목사로서 이명이 가능하다.

*접수마감: 2010년 8월 30일
*서류: 입학원서, 이력서, 서약서, 추천서, 신앙고백서, 명함 판사진 2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영문) 각 1통.
문의: 323-734-0227, 213-725-3007(학교)

<박상미 기자>

[새벽강단 8] 영생장로교회 새벽예배

복의 근원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교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멸망 받을 꼴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사람을 매고 결박했는데 이 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7절 사람이 아기를 낳듯 예수님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지낸 지 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8~9절...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영생장로교회 '심판 주 예수를 의지해야 복 받아'

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영생장로교회 김해성 담임목사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토요일 새벽예배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찬식이 거행됐으며,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며 우리 안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다.

<본문: 시편 2편 1~11절>
시편은 전체의 구조가 참으로 놀랄 만큼 조직적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1편에는 온전한 행복한 사람에 대해 말씀했으며, 이 온전한 사람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2편은 범죄한 인간의 악한 행위를 말하고

매여 사는 한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쁘지만 이 법에서 벗어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 법이 첫째로는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이 심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잘 지키고 살면 기쁘고 행복하지만 아니면 불행합니다. 다음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가정을 잘 지키면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심계명도 깨고 가정도 깨려고 합니다. 이것을 갠 사람은 불행입니다.

시편 2편 4절입니다.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이어 본문 5~6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시온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

구원하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려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 주께서 오시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본문 10~12절...결론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시대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다 용서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는 말은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복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도 겸하여 받

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상미 기자>



한선희 목사

'이단에 대해 바르게 알고 대처하자' 22일~23일 이단대책 세미나 열려

개최한다. LA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개최되는 세미나는 22일 오후 5시~8시, 23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신천지, 안식교, 구원과, 다락방, 하나님의교회, 안상홍증인회에 대해 강의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강사로 나서는 한선희 목사는 "예전에 이단들은 교회 밖에서 신자들을 미혹하여 끌고 갔다면,

지금은 위장 전입하여 교회 안에서 누룩과 같이 퍼져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다"며 "이단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여서 교회와 가정과 영혼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금번 이단대책 세미나는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정현 목사)가 주관한다.

<박상미 기자>

크라이스트 엔터프라이즈 3차 간병인 응급조치반 강좌

Christ's Enterprises에서 주최하는 간병인 및 응급조치 자격증 세미나가 8월에도 계속된다. 8월 28일과 30일~31일까지 열리는 세미나는 일반인에 위치한 우립교회(23662 Birtcher Dr., Lake



지난 응급 처치 세미나 장면. ©크라이스트 엔터프라이즈

Forest, CA 92630)에서 오후 1시~6시까지 매일 5시간씩 진행된다. 3일간 총 15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세미나의 수강료는 \$440이며, 특히 4시간 교육으로 3년 유효카드를 취득할 수 있는 응급

조치 강좌 수강료는 \$40이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로는 Dr. Janet Choi (자넷 최 박사, 노인건강케어 컨설턴트)가 나서며, 병원과 양로원을 직접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박사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양로원에서 근무

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필수 과정인 교육 세미나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15시간의 짧은 간병인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로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평생 어디에서나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간병인은 이웃을 섬기는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정부와 상관없이 보수 교육이 없고 2년 마다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

학금 모금을 위해 자넷 최 박사가 작사한 복음서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CD나 테이프를 구입할 수 있다. 자유롭게 기부(IRS 세금 공제)도 가능하며, 특별히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장학금 기부를 통해 간병인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문의: 949-900-6859(사무실) 플러튼: 714-469-4161 (Roy Choi), 714-328-0511 (Rev. Liz Kim) L.A.: 323-733-0647.
<박상미 기자>

내 부모 처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 모집

장애 우 사랑교회에서 양로병원 봉사 10년 동안 하다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매일 찬송가를 암송하시므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 대회를 빛내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과 봉사자 분들(15명)을 초청하오니, 연말연시의 바쁜 시간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그랜드 팍 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 12월 17일 오전 9시 30분~11시
- 2312 West 8th, Street, LA., CA 90057-3955
- 중앙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 12월 18일 오전 10시~11시 30분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대회는 찬송가 204장을 심사곡으로 하여 상금도 주어집니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3등 3명에게 각각 30불, 그리고 찬송가 모두를
다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연락처 : 213-705-0404 / Fax: 213-351-0955
메일 :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8월 30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쁜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트)



저자 인사말을 전한 박재호 목사. ©지재일 기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은 신자의 특권이요, 고귀한 사명입니다.” 성결대학교 미주 서부지역 동문회 주최 박재호 목사의 신간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신다’ 출판 감

사예배가 가든 스위트호텔에서 11일 열렸다. 저자 인사말을 전한 박재호 목사는 “요즘 기독교 서적 중에도 세속적인 경향의 책들이 많고, 복음적인 신앙에 입각한 책들이 부족하다”



며 “앞으로도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평생 좋은 책을 쓰는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호 목사는 찬송을 바로 알고 가르치며 목회에 적용해 브라질 새소망교회를 세계적인 찬양의 모범교회로 부흥발전 시켰으며 미주찬송가공회를 창설해 한국 찬송가의 위상을 높이고 찬송가 발전에 숨은 공로자로서 찬송 보급을 위해 업적을 남겨 2008년 11월에는 한국찬송가공회로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공로상 제1호를 수여한 바 있다.

박재호 목사,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신다’ 출판기념예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영혼의 고백”

2010년 4월 15일에는 미주찬송가공회 5대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박재호 목사님의 신간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박재호 목사님의 책을 통해 성도들이 찬양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함으로써 찬양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2부 감사예배에서 박희민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축사를 전했다.

서평을 전한 이응호 박사(성결

대학교 교회사교수는) “역사적으로 성결교단 3대 서적을 꼽으려면, ‘목시록강의’, ‘부흥성가’,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신다’를 꼽을 수 있겠다”며 “찬송가의 본질에 대해 쓴 이 책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찬양을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예배를 위해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동선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지명현 전도사(소리엘)와 미주여성코탈롱중앙단(지휘 오성애) 사화운동본부 대표회장(지휘 오성애) 강정운 목사, 김영국 목사(성결대학교 동문)가 특별찬양을 드렸다. 남가주교협 회장 지용덕 목사,

하와이성결교회 담임 임병철 목사, 남가주 교협 8.15 광복절 기념 강사로 초청된 한국 비전교회 담임 정도출 목사(한기총 가정사역위원회 위원장)가 축사를 전했다. 또한 조명한 목사(크리스천뉴스위크 발행인)가 독후감을 낭독했다.

예배는 브라질새소망교회, 미주성서화운동본부, 월드미션대학교, 미주총신대학교, 성결월드미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미주찬송가공회 등 주요 단체에서 후원했다.

(지재일 기자)

새 도약 위해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 야유회 가져

은혜로운 성가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단장 장영순 권사, 지휘 조한우 교수)은 지난 3월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아이티 이재민 돕기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합창단은 복 있는 사람들(김성균 곡), 성령의 능력(Pepper

김치 100포기를 전달했다. 8월 11일에는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은 랜초 파크(Rancho Park)에서 하계 야유회를 가졌다.

장영순 단장은 “올한해 아이티 돕기 연주회, 김치 담그기, 하계 야유회 등 은혜로운 일정을 마쳐 하나

함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씀처럼 누구나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란다”며 “합창단에서 개인 레슨과 연주 기회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할 기회도 제공된다”고 전했다.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은 매주 정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은 11일 랜초파크에서 하계 야유회를 가졌다. ©지재일 기자

2011년 연주 일정 위해 합창단 신단원 모집 중

Chopin 곡), 사명(이권희 곡) 등 10여 곡의 성가곡을 연주해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지난 8월 4일에는 나눔선교회(대표 한영호 목사)를 방문해 한인 청소년들을 위해 직접 담근 사랑의

님께 감사드리다”며 “2011년 헌찬 새 도약을 위해 함께 찬양할 새로운 멤버의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휘자 조한우 교수(미주총신대학교회음악학과장)는 “시편 150편 ‘호

기연습은 올림피아장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며 연습 후 식사교제 시간도 갖고 있다. 합창단 등록을 원하는 이들은 213-255-6124로 문의.

(지재일 기자)



테너 석다니엘 집사(좌) 바리톤 채흥석 집사.

8월 26일(목)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 세계등대교회(담임 이상남 목사)에서 성가대 지휘자 및 성가대원, 음악 관심자들을 위한 발성·지휘 클래스가 열

투자를 들여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찬양의 제사가 거룩하게 드리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일예배 중에 드리는 한 곡의 찬양시간보다 오히려 찬양

보를 읽는 법(시창), 성악 발성, 합창, 기본 지휘 이론 등의 내용을 배울 수 있다. 작은교회 성가대의 경우 음악 비전공 지휘자들이 많아 그들을 위한 배움의

페셔널 뮤지션이 봉사하고 있다”며 이번 겨울에도 지휘법, 작곡, 피아노 반주법 등 교회들의 음악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클래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재일 기자)

지휘자, 성가대원 위한 발성·지휘 클래스

린다.

석다니엘 집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배(말씀)와 찬양인데,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을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석 집사는 “배움을 통해 더 준비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클래스에서는 악

기회를 제공해 교회 음악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클래스가 마련된 것이다. 석다니엘 집사는 “현재 세계 등대교회에서는 14명의 프로

발성·지휘 클래스는 40분의 수업료가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213-507-4141로 하면 된다.

(지재일 기자)

www.seattleonnuri.com

담임목사 청빙 공고

워싱턴주 Lake Forest Park에 위치하고 있는 시애틀 온누리교회 (미국 C&MA 교단 소속)에서는 지난 16년간 사역을 담당해 오신 김제는 담임목사님의 은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조건

- ①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② 전임목회 경력 5년 이상 되시는 분
- ③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 서류

담임목사 지원서 (Application Form) : 양식은 온누리교회 website, www.seattleonnuri.com에서 download
 최근 인물 사진 1장
 자기 소개서 - 본인의 성장 배경, 신앙 간증, 목회 비전, 지원 동기 포함. (2-4 pages)
 소속 교회 최근 주보 1장
 설교 2 회분 (CD, DVD, 또는 Website Link)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장소:
 Onnuri Church Attn: PSC Chair
 20150 45th Ave NE Lake Forest Park, WA 98155-1710
 Tel: 206-371-5934 (PSC Chair)
 Email: psconnuri@gmail.com
 (PDF 파일이나 워드파일로 서류 제출 및 문의 가능)

제출 기한: 2010년 9월 30일

GLOBAL VISION BANK

글로벌 비전 뱅크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흥 목사



멕시코 한인회와 미주 한인동포들이 함께한 8.15 기념식 ©박상미 기자



박인곤 회장이 이끈 Eagles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페르민 김 회장과(가장 왼쪽) 박인곤 회장(가장 오른쪽), Eagles 태권도 시범단.

“여러분의 선조들은 모두 훌륭한 애국지사입니다”

1905년 1,000여명의 한인들은 4년 정도만 일하면 금의환향 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멕시코 유카탄(Yucatan) 반도의 사탕수수(Henequen) 농장으로 이주했다. 말하자면 멕시코 이민 1세대들이다.

국을 위해서였다. 그들은 어렵게 한 푼 두푼 모아서 독립자금을 마련해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전달했다. 매년 3.1절과 8.15 광복절이 되면 멕시코에 사는 한인 후손들이 모여 이 날을 기념한다. 멕시코 이

있는 한인회관(멕시코 한인회 회장 페르민 김 킵)에 모여 광복 6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은 사단법인 애니깽 한인후손 후원재단(이사장 백형권 목사)과 더불어 LA교역자협의회(회장

로 뜻 깊은 시간을 보냈으며, 특별히 중남미 지역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태권도 시범을 선보임으로써 한국의 얼과 정신을 알려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태권도 시범을 위해 글로벌선교태권도사관학교 박인곤 회장(재미태권도협회)이 한국의 Eagles 시범단을 초청, 미국의 Eagles 시범단과 함께 태권도 시범을 보였으며,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페르민 김 킵 회장에게 대한민국 국기원에서 주는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페르민 김 회장은 “광복절 기념행사를 통하여 조상의 전통과 근본을 기억하고, 그것은 또한 국경과 경계가 없이 세계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며 “밝은 미래를 향해 한 민족으로 나아가자”고 축사를 전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애니깽 한인후원재단 이사장 백형권 목사는 “여러분의 선조들은 일본의 압제만큼 힘들게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지만 후손들에게 조국의 얼을 심어주고 독립자금을 모아 독립투사에게 보낸 매우 훌륭한 애국지사”라며 “우리도 조국을 떠난 이민자들이지만 자랑스러운 조국을 바라보며 멕시코에서 또 미국에서 튼튼히 뿌리내리며 좋은 나무로 자라 나기 바란다”고 전했다.

LA교역자협의회 표세홍 목사 또한 “많은 이민자들이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가장 가난했던 멕시코 이민자들이 가장 많은 독립자금을 모아 후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광복절 기념행사 후에는 220여개의 태극기와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 등을 참석한 멕시코 후손들에게 전달했으며, 불고기 등 정성껏 준비한 한국음식을 나누며 65년 전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겼다. (박상미 기자)

한인동포와 멕시코 애니깽 후손들 최초로 8.15 연합기념

매일 노예처럼 혹사를 당하면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돈을 모아 조국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꿈 때문. 그러나 임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조국은 일제의 손에 넘어가 그들이 돌아갈 고향 내 나라 조국은 사라졌다. 속임수였다. 강제노역을 위해 노예로 팔려간 그들이었다. 그래도 좌절할 수 없었던 이유는 조

주 1세대로부터 3~5대까지 이어진 후손들의 생김새는 이미 멕시코인들을 많이 닮아있지만 3월 1일과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특별히 LA와 두 시간 거리에 있는 멕시코 티와나(Tijuana) 지역에는 약 3천여 명의 한인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지난 8월 15일 티와나에

표세홍 목사), 글로벌선교태권도사관학교(회장 박인곤), 국제문화연합회(회장 이메리) 등이 후원함으로써 멕시코 애니깽 후손들과 미국의 한인 동포들이 최초로 광복절 연합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멕시코 한인후손 및 미국 동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멕시코 전통춤과 한국의 전통 문화공연으



멕시코 전통무용



여드름 고민 해결!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 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T.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WEA·WCC 총회서 통일 위한 협력체 만들자”

박종화·손인웅·이영훈 목사, 8·15대성회 대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와 세계 한인 거주지역에서 동시에 성대하게 개최된 ‘한국교회 8·15 대성회’ 다음날인 16일, ‘예수 그리스도, 한반도의 희망’을 주제로 통일분과 대회가 이어졌다.

서울(연세대), 대전(새로남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전주(바울

력체를 만들어 출범시키면 어떻겠느냐”며 “플러스 알파로 유럽과 동남아 등의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공동의 복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무대로 이번 국제대회들을 활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이것이 바로 한국

특히 한국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최근에 좋은 관계를 위해 서로 만나기도 했다”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적극 활용하면 좋겠고, 중국 선교를 통해 북한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교적으로도 중국과 관계를 다져 나가면서 북한 문제를

네 의원과 탁아소, 고아원 등 북한의 외형적인 복지체제를 내실화시켜 주고 거기에 하나의 센터로 교회를 짓는 복합구조 속에 교회를 세우는 복지 지향형 선교로 사고를 바꾸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손인웅 목사 “통일 이후 대비한 기금 조성하자”

손인웅 목사는 “제가 이사로 있는 성서공회 같은 경우 북한을 돕기 위해 통일 되면 성경을 보급하려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통일세처럼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를 위해 북한에 교회를 재건하고 교육 프로젝트 등을 위한 기금을 만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면 마음의 준비도 되고 북한 사람들이 들을 때도 그렇게 싫지 않을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후 10개 영역에서 워크숍이 진행됐다. 주제는 각각 ‘북한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김병로 교수)’, ‘한국교회의 탈북자 지원, 현황과 과제(강철민 목사)’, ‘북한인권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박명림 교수)’, ‘남북한 농업기술 협력을 통한 북한의 개방(이용범 교수)’, ‘군사분계선 경계지역의 평화적 이용(김영봉 박사)’, ‘통일 후 남북한 토지제도(남기업 박사)’, ‘남북한 경제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김영운 박사)’, ‘대북 인도지원의 목표와 NGO의 역할(강동완 박사)’, ‘북한체제의 전망(오경섭 박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허호의 교수)’ 등이었다.

마지막 순서인 평화통일 부흥회는 1부 ‘분단의 아픔을 노래하다’, 2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다’, 3부 ‘하나님의 평화·생명·희망을 나누다’ 등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CCM사역자 홍순관, 오정호 목사의 메시지 등이, 2부에서는 난타 퍼포먼스, 7인조 여성 그룹 세븐 마리아, 퓨전 가야금팀 주보라밴드 등이, 3부에서는 고형원 선교사가 이끄는 부흥한국 등이 맡았으며, 모두 함께 ‘통일의 노래’를 합창하며 마무리됐다.

(이대웅 기자)



왼쪽부터 이영훈 목사, 손인웅 목사, 사회를 맡은 황선엽 구세군사관학교 총장, 박종화 목사. ©이대웅 기자

교회) 등 4개 지역에서 각각 개최된 통일분과 대회는 평화통일 기원예배, 평화통일 특강, 통일대담, 평화통일 영역별 워크숍, 평화통일 부흥회 등으로 이어졌다.

박종화 목사 “북한 지원 위한 기독교 ‘6자회담’ 개최를”

이날 행사 중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곳은 역시 한국교회 주요 지도자들인 박종화 목사(경동교회)와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이 출연한 통일대담이었다. “한국교회, 통일을 논한다”를 주제로 대담을 펼친 이들은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국제적인 역할, 신학적 문제와 준비상황 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박종화 목사는 3-4년 후 한국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인 WCC와 WEA 등의 국제회의들을 통일에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두 대담을 계기로 기독교 차원의 6자회담에 상응하는 협력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목사는 “정치결사체가 아니라, 북한 지원을 위한 협

교회의 성숙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아이티를 도왔던 것처럼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 지원도 공동으로, 글로벌화해서 북한도 세계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목사 “WEA·WCC 때 모든 인사들 판문점 데려가서...”

이에 앞서 이영훈 목사도 “2013년 WCC 총회 때 오시는 분들을 모두 판문점이나 개성에 데려가서 전세계적인 압력을 북한에 전할 수도 있다”며 “전세계 4억 5천만 성도가 가입된 2014년 WEA 총회도 예정돼 있는데, 이런 총회들이 우연히 열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을 통일로 이끌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한다고 보고 있고, 이런 총회들을 잘 활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인웅 목사는 최근 천안함 폭침 등 일련의 사태에서 북한 편을 들고 있는 중국을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손 목사는 “중국도 지난 올림픽 이후 기독교,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를 거론한 것처럼, 실제적인 방안들도 논의됐다. 이영훈 목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생각하는데, 기금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네트워크해서 강력한 기도로 통일을 위한 영적 분위기를 바꿔 나가야 한다”며 “행사 차원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특별 기도주일을 정하고 일회성이 아닌 강력한 기도운동을 전개해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러한 기도를 일년 내내 가슴에 품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화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짓고 있는 심장전문병원처럼 거대한 병원을 한국교회 가 짓는 것과 아울러,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외양은 모두 갖춰져 있지만 내실이 없는 동네 의원들을 맡아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돌봐야 한다”며 “병원 따로 교회 따로 세울 것이 아니라, 동

“한국교회, ‘죽은 사자’ 되지 않으려면 미래 통찰해야”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신학과 실천 과제를 새롭게 정립하고, 교파 간 대화, 기도를 통해 ‘선교의 연합’을 이루어 갈 것을 다짐했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에서 진행된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선언문에서 “한국교회가 죽은 사자와 같이 평가되지 않으려면 100년의 미래를 전망

국선교신학이 각각 나아갈 방향과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또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분열과 갈등 해소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된 한국대회는 서울대회, 인천대회, 부산대회로 각자 특색 있게 진행됐다.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교회,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된 서울대회는 국내뿐 아니라 미주, 유럽,

에딘버러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 선언문 발표

하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교회에 주어진 중차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선교신학과 실천 과제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케리그마’에 기초하여 성경 중심의 선교를 전개하고 동시에 현진인 중심의 선교, 과학 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미션 네트워크로 21세기 맞춤 선교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파 간 지속적인 대화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 ‘선교의 연합’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선언문에서 불과 100년 전 피선교국이었던 한국이 2010년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시대 한국교회와 한국선교, 한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선교학자, 선교사 후손 40여명 등 총 100명의 국내외 선교학자가 1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한 국제적인 선교학술대회로 개최됐다.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주안장로교회에서 열린 인천대회에서는 한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의 제물포 입항을 기념하며 향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선교사를 전세계로 파송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으며, 7월 4일부터 5일까지 수령로교회에서 열린 부산대회는 화해와 소통을 통한 연합 선교가 강조됐다.

한편 선언문작성위원은 임희모(위원장), 박영환, 소윤정, 안희열, 이광순, 이후천, 임열수, 장성진, 장훈태, 정홍호, 한국일, 홍기영(가나다순) 등이다.

(이지희 기자)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i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OPEN 7 DAYS A WEEK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옥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울 목사
 주일예배 오전 9:50 주일성경공부 오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후 4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 (213) 550-73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성경공부: (화)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수) 오전 10:30
 금요일 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중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나리교회
 담임: 박종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동양선교회
 임동선 원로 목사
 1부예배 오전 7:00 4부예배 오전 12:15
 2부예배 오전 11:30 5부예배 오후 2:30
 3부예배 오전 10:15 E.M 오후 12:0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 www.omi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EM예배 오전 11:0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90012
 T. (213)-975-1111 / F. (213) 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노래예배 매일 오전 7:00(다운터문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스터디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주일) 오전 6:00
 2부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창조교회
 담임: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찬양경배 오후 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쉽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시온성증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성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창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준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615 shatto place, LA, CA90005
 T. (213) 249-9191 / F. (213) 739-051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요일) 수요일 오후 7:45
 정오 12:30 분당 금요일예배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헤브론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1:00
 3부예배 오후 1:45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405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T. (323) 735-8677 / F. (323) 735-960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월-토)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뉴욕서 시작된 ‘나눔과 기쁨’

나눔과 기쁨 미동부지역 발기
준비위원회 모임이 18일 오전 11
시 퀸즈중앙장로교회(담임 안창
의 목사)에서 열렸다.

모임에는 120여명의 목회자들이
이 참석했다. 김수태 목사(발기 준

비위원회)가 사회를 맡은 사운
데 진행된 예배에서는 김남수 목
사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우리가 이제 나눔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누
지 못하는 것은 어려운 과거를 잊

고 회상하지 않고, 나눔이 시급하
고 선교 전략으로서 얼마나 중요
한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가 나눔
을 실천하지 못하면 초래될 결과
가 ‘공산주의와 이슬람’이라고 지
적하며 이에 대해 심각하게 설명
했다.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토양은

준비위원회 모임에 120여명 참석, 9월 중 창립

가난입니다. 공산주의는 증오와
비판, 혁명을 통해 힘을 창출하고
정권을 만들며, 이 힘을 통해 정
권을 다시 강화합니다. 이슬람교

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 친구를 만
듭니다. 한국은 극빈자가 존재하
는 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가
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극빈자
를 버려두면 이슬람이 장광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받은 축복은 ‘돕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
하며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위
해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손을 잡
고 함께 일해주길 당부했다.

현재는 준비위원회장 김수태
목사, 준비위원회 서기 정도영 목
사가 조직을 맡고 있다. 이날 모
임에서는 42명의 목회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 신청서를 제출
한 목회자 중에서 임원을 선정해
오는 9월 경 한국 스텝들과 함께
출범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윤주이 기자〉



나눔과 기쁨 발기준비위원회



워싱턴 지역 기독교장학재단 관계자들과 장학금 수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워싱턴지역 기독교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 및 감사예배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 의의 병기가 되게 하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의
의 병기가 되게 하소서!”

지난 15일 오후 5시 제자들의
교회에서 워싱턴지역 기독교장학
재단의 2010년 장학금 수여 및
감사예배가 열렸다.

송상래 고문은 개회 기도를 통
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많은 이들이 기도와 물질로 동참
해 7명의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
니다”라며 예배의 문을 열었다.

김해길 목사(제자들의 교회 담
임, 워싱턴지역 기독교장학재단 고
문)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목사는 “여러분이 절대로 주
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
면 분명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접붙임 되
어 많은 과실을 맺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
께 드리 여러분이 주님의 의의 병
기로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길 도전합니다”라고 전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하고
6명의 명예이사(조동호, 박명옥,
이연규, 김유동, 장옥자, 조영자)
와 3명의 재정이사(하미경, 고평
자, 박해숙)에게 위촉장을 수여
한 후 장학생들의 신앙간증 시간
이 이어졌다.

래혁 학생(고든 콘웰 신학대
목회학 석사과정)은 모범적인 기
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를 가게 되었다고 과정

에 대해 간증했다. 이민 1.5세인
그는 “이민사회에서 1.5세와 2세
사역의 중요성과 그들에게 영적
인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
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교
리가 부재한, 찬양에만 은혜를 받
는 어린 세대, 그것마저도 가사의
의미는 전혀 모른 채 오직 뜨거움
에만 열광하며 뛰는 세대에게 복
음의 깊고 넓은 가르침을 주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2세와
1.5세를 잘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공부하겠습니다”라고 간증했다.

또한 박래혁 학생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가가 ‘캠퍼스
사역’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
기도 했다.

필라델피아 소재 영생장로교
회에서 영어권 사역을 맡고 있는
오스틴 조 목사는 직접 기타를 치
며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감사를
드리기도 했다. 조 목사는 웨스트
민스터 신학교에서 구약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구약학을 가
르치는 꿈을 갖고 있다. 때로는
스타벅스에서 6시간 이상을 말씀
만 입을 정도로 성경 말씀을 사모
하는 목회자이다.

특별히 올해는 지진 참사로 큰
인명피해가 있었던 아이티의 신
학생 두 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
여해 눈길을 끌었다. 두 명의 아
이티인 신학생들은 서툰 한국어
솜씨지만 정성껏 써 내려간 감사
의 편지를 보냈고, 문남희 집사(
회계)가 그 편지를 읽어 내려 갈
때 많은 감동을 주었다.

박희숙 집사(서기)는 “장학금
수여자들의 간증문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들이 차세대
들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하
기도 했다.

〈조혜련 기자〉

워싱턴교협 주최 청소년연합수련회 성료

Father's Heart와 협력해 풍성한 열매

본격적인 ‘백 투 스쿨’ 시즌이
다가왔다. 새 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들, 학교라는 곳에 처음 발을
디딘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
며 ‘아직 어리지만 한 아이들이 잘
해 낼 수 있을까?’ ‘공부하고 친구
들을 사귀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염려되기만 한 것이 부모의 마음
이다. 자라난 키만큼이나 방학 동
안 수련회, 단기선교, 교회 봉사
등으로 부쩍 성장한 신앙이 분주
하고 세속적인 학교생활 가운데
흔들리지는 않을까 한 가지 걱정
을 더하게 되는 것이 자녀의 개학
을 앞둔 모든 가정의 모습이다.

방학 동안 흐트러진 몸과 마음
을 추스르고, 새 학기 학업과 신앙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백 투 스
쿨’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토요
일(7일)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기
자는 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를 방문했다.

이날 초등부를 맡고 있는 지니
조 전도사가 말씀을 전했다. 선교
사의 자녀로 어린 시절 필리핀, 싱
가폴 등을 다니면서 개학 전날 겪
어야 했던 설렘과 두려움,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곧 익숙
해져 모든 게 일상적이고 평범해
지던 경험을 영어와 한국어로 전
한 조 전도사는 “장터에 나가 피
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
도 슬퍼하지 않던 친구들을 생각
해보라. 우리는 개학처럼 늘 새로



워싱턴 지역 청소년 연합 수련회 단체사진

운 것, 신선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것에는 흥미를 잃어
버리기 쉽다.

하지만 가장 지루한 시간에도,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예수
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관
심을 끌고 싶어 하신다. 이번 학
기 중에는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
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 정
인수 목사는 기도회를 인도했다.
특히,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을
앞으로 초청해 목회자들과 당회
원들이 함께 안수기도해주는 시
간을 가졌다.

〈조요한 기자〉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컨퍼런스

워싱턴교협 주최, 강사는 김종필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
장 김성도 목사)가 주최하는 중
보기도 컨퍼런스에 LA, 뉴욕, 미
시간 등 타주에서도 신청이 이어
져 전국 규모의 컨퍼런스로 발전
하고 있다.

이에 워싱턴교협 임원진은 8월
17일(화) 기자회견을 열고 “타주
에서 참석하는 이들을 위해 원래
8월 20일로 마감되는 호텔 예약
을 8월 28일로 연기하는 것을 호
텔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텔은 2박에 79불(+세금 9%, 2
인 1실)이다.

김성도 목사는 “각 교회마다 중
보기도팀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
에 다시 한번 중보기도의 성경적
인 의미를 깨닫고 그 능력을 체험
해 기도의 불길이 미전역에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세계적
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 때,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워싱턴 DC
에서 세계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에 큰 의
미가 있다”고 전했다.

중보기도 컨퍼런스는 ‘불의 종’
으로 알려진 김종필 목사를 강사
로 9월 9일(목)부터 13일(월)까지
운누리드림교회(담임 이근호 목
사)에서 개최되며, 중보기도 세미
나뿐만 아니라 저녁부흥회, 목
회자 세미나도 함께 진행된다.

문의: 703-581-9235
〈조요한 기자〉

www.rosehills.com

로즈힐 공원묘지

100여년 역사의 정성스런 관리서비스와 가깝고 편리한 로즈힐공원묘지를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세요!

비교해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
월 \$39부터!

- ▶LA한티어운에서 20분 거리 ▶풍수지리적 관점의 최고 명당
- ▶세계 최대 규모 단일 공원묘지 ▶한인장례매너의 친절한 상담

묘지에서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Rose Hills Mortuary Whittier #FD970

Morning Glory Lawn. \$2,900 plus one time endowment fee. 10% down payment. Balance financed at 3.9% (this interest rate is good for 2nd Quarter, April through June 2010). Automatic bank payment required. 84 monthly payments

본사 (한국어 직통) 1-888-848-8707 Rose Hills Mortuary (#FD970) 3888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	세리토스점 [한국어 문의] 1-877-767-8850 Rose Hills Arrangement Center (#FD1849) 11900 S. Street, #119 Cerritos, CA 90703	브레아점 [Brea] (562)809-7027 Rose Hills Brea (#FD2007) 835 S. Brea Blvd., Brea, Ca 92821	장의 & 장례보험 문의 (562)201-7097
--	--	---	--

서철원 목사,

‘교육부 산하 아닌 선교에서 접근해야한다’

2세사역, 성공하려면 기존 개념부터 버려야

▶1.5세 문화적 특성.. 정체성 파악안된 세대

서철원 목사(베델교회)는 “1.5세란 누구인가? 영어에서는 원래 이런 말이 없다. 이것은 선교현장에서 나온 말이다. 이민사회가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라고 말했다.

그는 “1.5세나 2세는 아직도 정체성을 잡아가는 중이다. 미국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장점이 동시에도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이들은 두 문화를 다 아는 세대”라며 “이 세대는 문화적으로 아직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그러므로, 2세 사역은 모든 것이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는 10장까지 밖에 안 나온다. 그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나온다. 다문화권을 체험한 바울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안디옥교회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 헬라문화권에서 태어났다. 당시 세계언어였던 헬라어에 능통하고 히브리언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한인 가정 아이들은 집에서 자연스럽게 선교훈련을 하고 있다. 집에서는 한국사람, 학교에서는 미국사람으로 여렸을 때부터 훈련받아왔다. 제 2의 바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문화는 서로간 공통되는 바탕이다



서철원 목사(베델교회)는 2세 사역을 선교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철원 목사는 “미국에서 아이들끼리는 고등학교까지 문화가 달라도 같이 논다. 그러나, 대학교에 가면 제일 친한 그룹끼리 뭉치게 된다”라고 말했다.

“아시아인 어머니는 아시아인끼리, 아프리카인 어머니는 아프리카인끼리, 유러피안 어머니는 유러피안끼리 친해진다. 서로 한국어를 못한다 해도 아시아인들은 공통되는 바탕(common ground)이렇게 있다. 만나면 왠지 모르

게 편하게 있다. 그게 문화다”라고 말했다.

그는 “흑인들이 영어를 못해서 흑인교회 가는 것이 아니다. 흑인교회는 예배방식이 다르다. 흑인교회만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2세사역은 ‘교육’아닌 ‘선교’로 접근해야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다는 사실 인지해야

서철원 목사는 “지금까지 2세 사역에 대한 여러 모델이 있었고 시도가 많았지만 지금까지 모델은 모두 실패했다. 2세 사역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교육부 산하라는 개념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5세에 아직 가장 적합한 모델이 없다. 1.5세의 문화적 특성자체가 아직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자기 교회의 교육부가 좋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것인가. 각 교회마다 2세 사역에 대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하는 건 너무 성급한 말”이라고 말했다.

서 목사는 “2세 사역은 영어를 잘해서 되는게 아니다. 영어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런데 자꾸만 문화보다는 영어의 문제로만 본다. 언어보다 문화라는 더 중요한 언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안에서는 세대 차이가 있다 해도 문화적 차이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1.5세 사역은 한국 문화와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다. 2세 사역은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나가 선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현지인을 훈련시켜 세워야 하는 선교원칙이 있듯이 1.5세도 그렇게 진행돼야한다”라고 말했다.

▶2세와 1세, ‘선교’라는 측면에서 하나 될 수 있어

서철원 목사는 “지금 한인 2세대 입장에서 솔직히 보면 한인교

회가 필요가 없다. 다 자라고 나면 딱히 한인이민교회로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서 다 떠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교회가 2세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게 해야 한다. 앞으로 2세에게 주인의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세대들이 자기 직업을 잘 찾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나는 나.’ ‘너’하면서 교회와 멀어지면 아무 소용없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2세 사역 목표를 말아오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2세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줄 수 없었는데, 딱 한 가지가 성공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단 하나밖에 없었다. 바로 선교다. 선교 교회에서 1세는 영어가 부족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2세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다. 선교지에서는 모두 선교사로 묶여진다. 목적이 하나가 된다.”

그는 “목적이 하나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언어가 안되는 것을 소통케 한다. 선교 자체가 소통하는 언어가 된다”면서 “앞으로 이민교회를 살릴 것은 선교다. 교육의 대상이 아닌 선교의 대상이다. 1세와 2세가 함께 하는 선교는 21세기의 틀”이라고 강조했다.

서철원 목사는 2세 사역에서 ‘교회간 연합’은 필요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단계라고 언급했다.

“한인교회의 연합은 2세 사역에서 첫 단추이다. 교회 간 연합에서부터 2세 사역은 출발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2세 사역을 단지 ‘교육’으로 접근하면 한인교회들이 서로 연합할 근거가 사라진다. 그렇지 않아도 지극히 개교회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민교회 시스템상으로 교회 간 연합이란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러나, ‘선교’라고 생각하면 각 교회가 협조한다.”

▶이민교회 2세 사역, 고정관념 깨야

서 목사는 “많은 이민교회들이 지금 2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제대로 투자하는 교회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 건물 열고 다음으로 유능한 2세사역자를 고용하는게 모든 이민교회 2세 사역의 방향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2세 사역에 대한 진정한 교육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다. 왜 하는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집회로는 한계가 있다.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다. 2세 사역은 단순히 전도사, 목사에 투자하는게 아니다”라며 그는 “한인 2세는 21세기 이민교회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향후 한국교회의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 목사는 “70년부터 시작된 이민역사가 40년이 지났다. 이제 교회 방식도 변해야한다. 목회자, 평신도 모두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4.50년의 이민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과 같은 모양일지도 모른다. 중요한건 이런 식으로 변화 없이 간다면 새로운 형태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철원 목사는..

뉴욕주립대학 비교인문학을 전공했고 웨스턴시스터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알바인 베델한인교회 2세사역관련한 부목사를 맡았으며, 2005년부터 몬트레이베델교회 담임목회자로 섬기고 있다. <임형진 기자>

제 8회 북가주 2세연합집회 (SEND YOUR REIGN) 개최

제8회 북가주 2세 연합 ‘2세에게 영적비전을(SEND YOUR REIGN)’집회

역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

는 강사로 Raymond Causly목사를 초청한다.이스트베이교회협의회(회장

회(회장 이진수 목사), 몬트레이 교역자협의회(회장 강동호목사), 이스트베이 교회협의회(회장 김경찬 목사), 콘트라코스타 교회협의회(회장 정대호 목사), 샌프란시스코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동학 목사), 솔라노협의회 회장(김세형목사), 북가주한인침례교회협의회(회장 이동진목사)가 특별후원한다. 대회준비위원장 이동진 목사

(새소망침례교회)는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 10중 8명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는 확신과 체험 없는 신앙이기 때문”이라며 “6천여 한인교회 중에 2세 목회자는 7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한다. 2세 지도자를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집회 때 4000명의 학생들이 모여 은혜를 받았고 4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사역자로 헌신한 학생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임형진 기자>

강사 Raymond Causly 목사 초청, 북가주 영어권 학생 대상

가 9월25일(토) 저녁 6시 30분에 Harbor Light Assembly of God (4760 Thornton Ave. Fremont, CA 94536)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 주제말씀은 “

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이다. 북가주 영어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

김경찬 목사)주관으로 열리며, 북가주 교회협의회 총연합회(회장 이동학 목사), 산호제한인교회연합회(회장 우동은 목사), 새크라멘토 한인교회 협의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민중기 칼럼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다. 모든 말은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고 시냇가에 이르렀으나, 그 중 4마리의 말만 뛰다가 중지하였습니다.

이 예언자는 그 4마리 말을 가려내어 다시 양육시켜 아라비아 말의 훌륭한 종마를 삼았습니다.

좋은 신자는 누구입니까? 인격이 좋은 사람입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신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인 고로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서 정지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능력

제자와 아라비아산 명마

말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명마 중의 하나가 아라비아 말입니다. 아라비아 말은 사막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인내력이 강합니다. 믿지 못할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의 명령에 잘 따르기 때문에 전쟁과 경주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벤허라는 영화의 백미는 전차경주인데, 거기서 벤허가 뱀살라와 경

쟁한 말은 아라비아 말입니다. 때리지도 않고 박차를 가하지도 않고 승리합니다. 이처럼 아라비아 말이 훌륭한 이유는 유목민이 가까이에서, 심지어는 천막 안에서 말을 데리고 살아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라비아 말은 명품을 만들기 위하여 오랜 검증을 거친 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한 아라비아 예언자가 우수한 말을 가지기 위하여 좋은 100마리의 종마를 구하여 길렀습니다. 시내가 바라보이는 곳에 담장을 쳐서 사육을 하면서, 먹이만 주고 물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루는 문을 열어 목마른 말로 하여금 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모든 말이 시냇가로 내달아 시냇물에 거의 이르렀을 때, 주인은 뿔피리를 불어 말을 정지시켰습니

다. 모든 말은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고 시냇가에 이르렀으나, 그 중 4마리의 말만 뛰다가 중지하였습니다.

이 예언자는 그 4마리 말을 가려내어 다시 양육시켜 아라비아 말의 훌륭한 종마를 삼았습니다.

좋은 신자는 누구입니까? 인격이 좋은 사람입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신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인 고로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서 정지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능력

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면에는 항상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버어, 소홀하게, 즉 경솔히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그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갔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좇는 것은 말씀을 좇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주인이시며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늬만 제자인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르거나,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거나, 환경을 두려워하여 그것에 굴복하고 맙니다. 참 제자는 묵묵히 순종하여 주와 그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양성필 칼럼



양성필 목사
베델한인교회 행정담당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힌 미군 최고의 장교 스톡데일장군의 이름을 딴것인데, 그가 1965년부터 73년까지 8년간 베트남에서 포로생활을 하면서 다룬 미군 포로들을 격려하고, 자신도 20여 차례 고문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고문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어느 시간까지 고문을 견디면 고문을 이길 이정표를 주고, 참을 수 없을 때에는 어느 정도는 자백해도 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고문을 극복하는 프로젝트를 감옥 안에서 추진하고, 감옥 안에 있다 보니, 포로들이 고립되어 있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하도록 5*5부호라는, 벽을 두드려 알파벳 암호를 만들어 간단한 대화를 소통하게 하는 등 포로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는 결국 석방되었고, 감옥에서의 공로가 인정되어 스톡데일은 해군 역사상 조종사 기장과 의회 명예

훈장을 동시에 다는 최초의 3성 장군이 되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스톡데일에게 물었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런데, 스톡데일 장군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아, 그건 간단하지요. 낙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거야... 부활절 때까지는 나갈거야...그런다가 상심해서 죽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생각 속에 머물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중요하지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 또한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스

스톡데일 패러독스

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당하면, 처음에는 희망을 갖다가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릎 꿇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포자기한 거지요. 희망도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모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세상 속에서의 고난, 신앙생활의 갈등 무수히 많은 고난과 갈등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신앙으로 다 이길 수는 없던데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야 성자니까 이기지만, 우리 같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

다” 혹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신앙으로 이긴다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욥이, 다윗이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것은 단순히 희망을, 소망을 잃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소망과 믿음과 함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아시지요? 골리앗에게 던진 돌 하나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손에 든 돌멩이가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다섯 개입니다. 왜 다섯 개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깊이 묵상한 가운데 발견한 것은...‘안 맞으면 또 던지려고 한겁니다’ 농담이 아닌

입니다. 어떤 주석을 보면, 골리앗의 형제가 다섯 명이어서 다섯 개를 들었다고 하지만, 본문에 다섯 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섯 명과 싸우기 위해 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서 기가 막힌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자신이 있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막연한 소망이, 간절함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지만,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믿음이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노력도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를 했다잖아요. 하나님 내일 시험에 100점 맞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험지를 봤더니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지 맨 위에 이렇게 쓰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적어주셨대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믿음과 노력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협과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3차 4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고난에 대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시련에 대해서 외치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게 오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고 고난이니 이기게 하시리라.”

제가 아는 목사님 한분이 찬양을 작곡했는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다가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내 피난처가 되시네. 길이 막히든지 소망이 끊어지든지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네. 두렵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흥용하는 바다 그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네. 나 요동치 않네. 길 되신 나의 주.” 이렇게 말하는 저도, 고난이 오면 주님 앞에 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동치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종환 칼럼



이종환 목사
두나미스 미니스트리

정치 지도자이던, 종교지도자이던 지도자에게 필요한 중요덕목은 자기희생과 헌신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주기철, 이기풍, 손양원, 조만식과 같은 신앙의 거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목시절 한경직 목사님께서 성전봉헌 예배 축도를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12월 성탄절을 지난 주간에

신앙의 거목

라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은 오랫동안 입으셨는지, 옷깃이 다 헤어진 남루한 오버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 분의 생활철학의 일면을 보여 준 듯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왜 이러한

믿음의 거목들이 없을까? 하고 기도해 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큰 인물 밑에 나오는 법입니다.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는 잔꾀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항해자는 바람을 잘 다스린다”고 합니다. 진실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계를 설치하는 기술은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기초부분에서 조그마한 오차가 벌어져도 정밀한 기계의 상층부에서 기계의 틱나가 안 맞을 뿐 더러 기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장사를 해도 그렇고, 학문을 해도 그렇습니다. 기초 없이 하면 모래위에 지은 집같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의 기초는 정직과 진실입니다. 미국교단에서는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를 뽑을 때, 이미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정신 감정과 함께 영성 테스트를 합니다.

진실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을 기쁘게 받아들여 위기를 지혜롭게 넘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헤어 칼라 전문점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up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LA 최고의 워치-매규리 콘도 상가 2층
월서+웨스턴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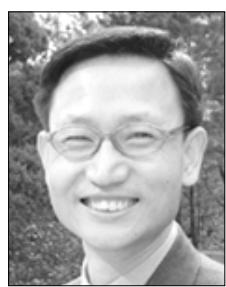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G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박종길 칼럼



박종길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천천히 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늦게 가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비행기의 방향이 잘못 되거나, 자동차의 방향이 잘못되면 빠른 속도만큼 위험과 어려움은 커집니다.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사격결선 50m 소총 3자세에서 당시 1위였던 미국의 매튜 에몬스 선수는 마지막 1발을 자기 과녁이 아닌 남의 과녁에 명

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그 곳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청동축쇄로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 왕에 의해 유대의 총독으로 세워진 그대라가 이스마엘에 의해

지도자들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바벨론을 믿어야 하는지 정확한 방향을 못 잡아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두 가지를 구합니다.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

중시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남의 과녁에 명중시킨 것을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도 방향이 틀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빠졌을 때, 가레아의 아들 요한과 군대 장관들은 이스마엘을 처단하고 예레미야에게 와서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렘 42:3, 우리말성경). 요한과

다. 어디로 가야 할 지, 무엇을 해야 할 지는 중요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답을 주십니다. 하나는 유대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왕

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하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과 군대 장관들과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A.W.토저의 "내 자아를 버려라"(규장)에 나오는 어떤 수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탉은 곡식의 낱알을 찾기 위해 헛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땅을 긁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주인이 잃어버린 아주 큰 진주가 그 녀석의 발톱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그것을 옆으로 밀어놓고 곡식의 낱알을 계속 찾았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엄청나게 귀한 것이지

만, 수탉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사서 그 밭을 사는 것은 그 밭 안에 감춰진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구했지만 막상 그 길과 그 일은 거부했던 요한과 유대사람들처럼 혹시 값지고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보화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보지 못했던 진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통찰력,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제목들입니다. 한 주간, 가야 할 길을 찾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성수 칼럼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2009년 여름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중학생 4명이 옥상에서 동반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

다. 이에 대한 대답 중에 57%가 혼자 해결한다, 48%가 친구와 해결한다, 4%가 부모와 해결한다, 1%가 선생님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즉, 학생들의 5%만이 자신의 문제를 어른들과 의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 소망과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아이들의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대속의 은혜가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의 수많은 영웅들에게

지 못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이 요청 앞에 과연 기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아이들 모두가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 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하여 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길은 예수님과 마음을 통하는 것 밖에 없구나. 이것만이 우리의 가정이 회복하는 길이구나...' 우리의 삶은 죄의 영향 때문

정인수 칼럼



정인수 목사
이탈리아연합장로교회

히브리서 10장 24절은 교회 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처럼 교

동체에 대한 바른 인식이 결여된 탓이다. 교회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섬김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섬김의 정신을 내면화하는 곳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세숫대야가 교회의 마땅한 정신이 되어야 한다. 원래 성령이란 단어는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 위로자로 번역하기도 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이다. 성령님은 세상 끝날 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서 서서 격려해 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교회는 위로의 성령님, 격려의 성령님이 머무시기에 마땅한

는 사람의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다. 둘째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교인들이다. 그들은 고통과 좌절에 빠져 사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고 위로해 준다. 그들에게는 권면이 있고 기도와 격려의 포용이 있다. 바나바와 같은 교인들이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사막을 지나는 것과 같다. 더구나 이민의 삶이란 불같은 광야의 길이다. 이러한 때에 격려의 사람들은 쓰러진 교인들을 부축하고 업어 주며 다독여 같이 걸어간다.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고 좌절 가운데 용기를 얻게 된다. 오늘날 이민 교회에는 격려

예수의 은총만이 대안입니다

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중 두 명은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두 명은 가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경찰은 나중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그냥 자살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한 언론사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 누구와 의논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

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지미 카터, 조만식, 이승훈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작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혹시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도 말 할 수 없었던 고민과 아픔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해하

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망과 상처와 아픔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는 것은 무화과 나뭇가지로 몸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가족웃을 입어야만 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적셔져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며 소망입니다.

진정한 격려가 되어 주는 공동체

회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또 있을까? 교회는 사랑과 선행의 공동체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 현실은 어떠한가? 사랑으로 격려하기보다는 서로 깎아 내리기에 바쁜 곳이다. 서로 돌아보기보다는 중상모략하고 시기하기에 바쁘다. 정치와 비난이 난무한다. 왜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세속적인 모습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교회 공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목회를 하면서 두 종류의 교인들과 대면하게 된다. 첫째는 율법 주의적 자세를 가진 교인들이다. 그들은 엄격한 공의를 행하며 늘 자신을 의롭다고 간주한다. 형제를 비판하며 심판하기를 좋아한다. 이 율법 주의적 교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침소봉대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을 무겁게 하고 그를 좌절시키고 위축시킨다. 일하고자 하

의 사역자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 정치와 비판의 눈초리로 동료 교인들에게 상처와 시험을 주는 율법 주의적 교인이 아닌 사랑과 격려의 사역자들이 더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다. 서로 붙잡고 의지하며 격려하여 든든히 세워 주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도록 하자!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원장 겸서명 목사

본원은 최고의 교수진과 동영상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수업이 가능하며, 수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교단에서 목사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 **특 전**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한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시를 면제함
- **구비서류**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www.cds.re.kr 대표전화 82-2-3472-3181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블랙앵거스 프라이머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 시내 ■ 장거리 ■ 귀국 ■ 사무실 ■ 창고이전 ■ 포장이사

행복 이삿짐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
항상 미소를... 항상 정성을... 항상 친절을...

작은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Tel. 323-733-2433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치과 보조사,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어름학기 속성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생,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건과류, 각종 공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등굴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삼성이 하면 다름니다!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외도 의뢰하므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le Ave, #1, Los Angeles, CA 90001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은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금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 \$40 한달 은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제임스 정 장로
EXECUTIVE DIRECTOR

Tel: 213.725.7217 세일즈 하실분 모집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폰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폰대학 (부속) 편강한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 20일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조경공사 랜드스캐핑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213-909-5518

한국 ₩ ↔ \$ 미국

당일 동시 (교액 전문) 소액도 가능합니다
T. 213-388-4989

한국은행 ▶ 미국은행 송금서비스 가능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p> <p>TEL : 562-926-1023, 4691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p>	<p>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p> <p>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p>	 <p>국제개혁대학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p> <p>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p>
 <p>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p> <p>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p>	<p>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ional Education College</p> <p>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8월 30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p>	<p>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p> <p>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p>
 <p>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p> <p>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p> <p>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p>	<p>풀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p> <p>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p>	<p>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p> <p>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p>
<p>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p> <p>(장학금을 지급함)</p> <p>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p>	 <p>솔로몬대학교대학원 Solomon University, SU</p> <p>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p> <p>TEL : 213-381-7755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School Code : 94809</p>	<p>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p> <p>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p>
 <p>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p> <p>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p>	<p>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p> <p>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p> <p>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p>	 <p>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p> <p>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p> <p>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p>

“비싼 집전화요금 이제 안녕~”

패밀리 알뜰 플랜

\$4.99 /월

Verizon, AT&T 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8월16일~8월31일 가입자에 한함

잡아라!

마이 코리아 넘버

지금 가입하셔서, 나만의 한국번호로 한국과 무제한 통화하세요!

가격·품질·혜택 불만 제로!

- ✓ 미국 전화번호 1개+한국 전화번호 1개 제공!
- ✓ 수신 무제한 무료!
- ✓ 초저가 요금으로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이용가능!
- ✓ 미국, 캐나다 2센트/분, 한국 유선전화 2.6센트/분
- ✓ 기존번호 이전 가능!
- ✓ 기존 집전화기 이용 가능!
- ✓ 각종 부가 서비스 무료 이용!
- ✓ 전세계 아이토크비비 고객간 무료통화!

30일 환불보장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한인출입이 많은 매장을 보유하신 분 또는 활동적인 분을 사업자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213-784-1133 (동부시간 오후 1시~오후3시)

Global Plan 글로벌 플랜

\$9.99 /월, TAX포함

* 3개월에 한해 이후 \$24.99/월

- 로컬, 미국, 캐나다 장거리+ 한국포함 27개국 무제한 국제전화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개통비(\$29.99) 면제

Global Plus Plan 글로벌 플러스 플랜

\$14.99 /월, TAX포함

* 3개월에 한해 이후 \$34.99/월

-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My Korea Number 마이 코리아 넘버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원어민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플랜을 원하세요?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iTalkBB

www.Korea.iTalkBB.com

가입문의 1-800-872-2902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30분(EST)

1-800-875-8318 (고객지원)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패밀리 알뜰 플랜 가입자에게는 월이용료 이외에 세금 및 기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글로벌 플랜과 글로벌 플러스 플랜은 프로모션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총 18개월 간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시는 경우 \$6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할인 받으신 총금액을 환산해 부과합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와 패밀리 알뜰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 대신 연필과 강연한 종이 크라프트 카드, 고품질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최대 규모, 최다 차량 보유,
최신 장비 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 가격 보장"**

북미에서 단일 딜러로 가장 큰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에쿠스 출시를 기념하여 기존 제네시스 리스하신 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제네시스 리스 리턴시 내셔야 하는 **DEPOSITION FEE(\$400)** 을 면제해 드리고, 재 리스시 **한달 할부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 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 pre-owned 소나타 제한)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8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쏘나타

(O.A.C & PLUS TAX T.D.O \$2,399/12KMILE)
LEXUS만큼이나 좋은 차, 불티 납니다.

\$199/3YR STK:031704



2011년도 최신형 제네시스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2,999/12K MILE)
대형 세단의 중후함을 느껴 보세요.

\$399/3YR STK:101312



2010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O.A.C & PLUS TAX, COMP. INCENTIVE T.D.O \$2,199/12KMILE)
스포츠 카의 최강자,
미래형 디자인과 힘을 느껴 보세요.

\$259/3YR STK:031622



2010 신형 엘란트라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1,999/12K MILE)
(목회자 특별 리스 해당 품목)
중소형 세단으로 연비 절감 효과

\$159/2YR STK:049539



8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

- 2009 HYUNDAI ELANTRA BLUE STK P755456 \$14,990
- 2007 BMW 328I WHITE STK PZ70863
-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 P018925 \$28,900
- 2007 BMW 328XI BLACK STK PP31167
- 2006 CHEVY AVALANCHE BLUE STK P084373A
- 2010 CHEVY IMPALA SILVER STK P107055
-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STK P253216 \$17,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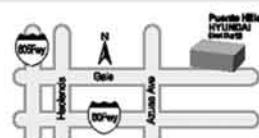
〈 매니저가 원하는 중고차 세일 〉

- 2009 CHEVY MALIBU BLUE STK P192398
- 008 HYUNDAI VERACRUZ WHITE STK P057661
- 2009 HONDA ACCORD WHITE STK P021316A
- 2009 TOYOTA TACOMA WHITE STK P640770
- 2008 HYUNDAI ENTOURAGE GOLD STK P051414
-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 2010 HYUNDAI SONATA BEIGE STK P581165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찰리 정 스티브 장 저스틴 길 제메인 존슨 지니 안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et you \$1,000. See dealer for details.



잇몸병 (잇몸) 하면, 온몸이 망가진다

는 경우가 더 많다”며 “치주 질환 예방을 위해 철저한 구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잇몸병 뇌됐다가 당뇨 키울수도...

잇몸병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주조직이 부실해지거나 치아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겨 발생한다. 치아 표면에 생기는 플라그와 치석이 원인이다. 치석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덩어리가 굳어진 상태를 가리킨다.

잇몸병에는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된 치은염, 잇몸과 잇몸뼈 주변까지 진행된 치주염(풍치)이 포함된다.

치은염은 비교적 회복이 빠르고 완치가 가능하다. 양치질 습관을 바꾸거나 약물만으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심한 치주염은 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치까지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잇몸병이 전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 잇몸병이 협심증,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과 뇌졸중 등 뇌질환, 당뇨, 폐렴 발병의 원인이 되며,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임규영 원장은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혈액을 통해 혈관에 들어가 손상을 입히고,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며 “사전에 충분한 예방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뇨병의 경우, 초기부터 치아관리를 잘못하여 다수의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 공급이 충분치 못하며, 감염에도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극소량의 치석이나 플라그에 의해서도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주조직(잇몸)이 급속도로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잇몸염증은 입 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몸 속에 침투해 더 넓은 부위의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임규영 원장은 “잇몸 질환이 있으면 상처가 나기 쉽게 되고 상처 난 부위로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입안의 상처를 통해 혈류를 타고 들어가 전

치주병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바로잡기

- 1 취침 전에는 양치질을 꼭 해야 한다.
- 2 치아와 잇몸 사이를 닦도록 아래 위 방향으로 칫솔질을 하자.
- 3 이를 닦을 때에는 안쪽부터 시작한다.
- 4 치실 치간칫솔 등 구강위생용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 5 1년에 1, 2번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생활화한다.
- 6 잇몸이 좋지 않다면 금연·금주는 필수.



자료: 대한치주과학회

잇몸병 주요 증상

1. 혀로 잇몸 뿌리를 만져보면 치석이 느껴진다.
2. 잇몸이 별절게 부어 올랐다.
3. 잇몸이 아프거나 잇몸에서 고름이 나온 적이 있다.
4. 잇몸이 내려가 치아가 흔들거리고 길어 보인다.
5. 치아 사이에 틈이 보이고 이가 옆으로 틀어졌다.
6. 음식을 먹지 않아도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
7. 칫솔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 (자료: 대한치주과학회)

우리나라 40살 이상 성인 70% 이상이 앓고 있는 병은? 바로 잇몸병이다.

2010년 1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잇몸병은 급성 기관지염, 급성 편도염, 급성 상기도 감염 등 호흡기 질환에 이어 다섯째로 흔하다.

뉴포트비치 임플란트센터 임규영 원장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충치가 아닌 잇몸병으로 치아를 뽑

신에 영향을 줘서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당뇨병·고혈압 환자는 3~6개월마다 치과검진 받아야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면 나이나 치석의 정도와 관계없이 잇몸병 발병 위험이 2~3배 커지므로 다른 사람보다 자주 치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한치주과학회는 당뇨병, 고혈압 등 생활습관병이 있는 환자의 치과검진 간격을 일반인(1년)보다 훨씬 짧은 3~6개월로 정했다. 65세 이상은 횡수에 상관없이 보험이 적용돼 1만원 정도면 스케일링 등 치과진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당뇨가 있는 경우 수분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므로 타액 분비가 감소되는 구강건조증을 많이 호소한다.

양승민 삼성서울병원 치주과 교수는 “당뇨병 환자는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므로 구강건조증이 잘 생기는데 입안이 건조하면 작은 자극으로도 잇몸에 상처가 생긴다.

또 당뇨병이 있으면 침 안에 세균의 먹이가 되는 당이 많아 세균 번식이 쉬우므로 중증 치주염으로 쉽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입이 마르고 타들어가는 듯한 증상을 가지는 구강건조증으로 인해 자정작용과 윤활유 역할을 하는 타액분비가 적어지므로 당뇨 충치나 잇몸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고 또 진행속도도 매우 빠르다. 따라서 당뇨환자들은 당뇨 초기부터 잇몸, 치아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당뇨환자의 치주병 예방 가이드라인

1. 정기적인 치과검진과 스케일링을 생활화한다.
2. 치실과 치간칫솔, 혀 클리너 등 구강위생용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3. 치아와 잇몸 사이를 닦는 칫솔질을 습관화한다
4.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구강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스트레스와 과로를 피한다
6. 잇몸이 좋지 않다면 금연과 금주를 꼭 실천한다
7. 치과치료와 함께 잇몸 약을 복용해 효과를 높인다

“성인이라고 치아교정 미루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치아교정은 청소년기에 해야 효과가 빠르고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치과를 찾는 환자의 70%정도는 20~30대 이며 그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높다. 이 같이 20~30대와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으니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체념하던 과거에 비해 평생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병

원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치아교정은 치아에 일정한 힘을 가해 위치를 변화시키는 시술이다. 치아주위에 치근막이라는 인대 같은 구조물이 있어 힘을 받는 쪽의 뼈는 점점 녹고 반대쪽은 뼈가 새로 생성되면서 치아가 이동하는 것으로 청소년, 성인 구분 없이 모두 교정이 가능하다. 다만 성인이 되어 치아교



정을 하려고 할 때 잇몸질환이 있다면 교정 전문의와 세밀한 진찰을 받은 후 교정을 시작해야 한다. 잇몸질환이 있는 경우는 교정 치료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잇몸질환이 더 악화 될 수도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대 이상 성인들은 직장업무로 대부분 바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치아 교정을 받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치아 급속교정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직장인이나,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이 치과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보입니다!

의료선교와 봉사, 이제 당신이 한 걸음 옮겨야 될 때입니다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Phlebotomy Technician (채혈사)

Medical Assistant (의료보조사)

EKG Technician (심전도사)

Certified Nurse Assistant (간호보조사)

Caregiver / Home Health Aide (가정방문 보조사)

Dental Assistant (치과보조사)

Medical Aesthetics / Skin Care (피부의료인)

13가지 과목 Test Center로 선정/GED 시험 도와드립니다.



Tel. 323)933-0013 Fax: 323)933-0015
www.umcollege.org / E-mail. umcollege@yahoo.com
4201 Wilshire Blvd Suite 450 Los Angeles, CA 90010

UNIVERSAL MEDICAL COLLEGE

유니버설 메디컬 대학 School Code # 22480

미주 최초 의료뉴스 포털

가주한의사협회

김갑봉 회장



급변하는 요즘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올바른 가치 창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인들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빠르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갈등을 해소해 주는 신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주한의사협회와 전 미주 한의사 총연합회 2700여명의 회원들은 곳곳에서 우수한 전통 한의학의 의술을 통해 고통에서 시름하는 환자들을 돌보며 의사로서의 그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학이라 할지라도 의학의 기본적인 정보가 없다면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제 그 역사적 출발을 하는 라파메디 신문 매체가 그 가교적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 않으면서 21세기의 변화와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국민의 신문이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SAM 의료복지재단

박세록 총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는 현대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의료인들의 신뢰와 환자들 사이의 가족처럼 섬기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라파메디'라는 이름처럼 치유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햇볕과 같은 소망이 이루어 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의료 교육과 진료에 종사 해 왔고, 지금도 소외된 병자들을 찾아 세계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영혼 구원 못지 않게 육신의 치유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울고 신음하는 자들과 같이 안타까워하는 좋은 의료가 이루어지도록 '라파메디'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 www.sam.net

인제대학교 백병원

백낙환 이사장



라파메디의 의료포털사이트 오픈을 축하합니다.

다양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한 사이트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www.paik.ac.kr

남가주한인간호협회

김영초 회장



한인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는 저의 협회는, 한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담당할 미주 최초의 의료 포털 라파메디의 창간이 여간 기쁜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보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매체의 발달이 급변하는 현 시대입니다. 이에 때 맞춰 의료 정보 조달과 올바른 가치 창출을 위한 신문 라파메디가 미주 한인들에게 양질의 삶을 영위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드리며, 라파메디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백호의 해에 창간되는 라파메디가 환호광명의 기세로 21세기의 변화와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거목이 되리라 굳게 믿어 않으며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네페스

이병구 회장



"The First"의 마케팅 원칙에 충실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성공적인 의료뉴스 포털로 자리매김 하실것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네페스 www.neps.co.kr

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최재원 소장



세계가 과학의 실크로드를 통해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실크로드의 중심에 기독교신앙과 사랑을 바탕으로 의료정보의 파수꾼이 될 라파메디가 창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다양한 정보공유 및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한인들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 향유할 수 있는 창이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라파메디"의 런칭으로 인해 미주 한인들이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길 바라며 보다 많은 이들이 정성 어린 진료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을 믿고 축하합니다. 의료포털 라파메디의 런칭을 위해서 수고하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창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health.amc.seoul.kr

경희한방병원

봉승전 원장



미주의 첫 번째 의료전문 정보 포털사이트 라파메디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미국에 와서 놀란 것은 미국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의료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의료정보체계가 없었다는 것인데, 이번에 기독교일보에서 라파메디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부디 정확한 의료 정보에 목마른 미주 한인들을 위해서 양질의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미주 한인들이 올바른 가이드 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보다 다양한 콘텐츠와 실질적인 내용으로 잘 꾸며주시길 기대합니다.

의료뉴스포털 라파메디가 미주 최고의 의료정보 사이트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자생한방병원 플러튼 분원

윤제필 대표



의료포털 라파메디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유익한 의료정보가 필요한 이들에게 널리 전파되도록 항상 응원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메디포뉴스

진승준 대표



라파메디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미주 지역 한인들에게 필요한 건강 소식과 꼭 필요한 정보를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라파메디가 되길 기원합니다.

키마월드

김용대 대표



건강을 위한 길라잡이, 의료종합 포털사이트 '라파메디'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www.kimaworld.net

서울대학교병원 LA

애니스 박 소장



미주 한인들에게 실용적이며 깊이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창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조은병원

최현규 원장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미주 사무소

장도명 대표



서울성모병원은 지난해 3월 강남에 27층 규모의 빌딩에 3500여 의료진이 근무할 수 있는 단일병동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주 한인 들에

게 높은 의료기술과 최첨단 장비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3월 LA 지역에 미주 법인 사무소를 개소,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 및 질환 치료 및 수술 등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민 100여년 역사의 미주 한인들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의 발전된 의료문화를 소개할 라파메디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인터뷰〉 가주한의사협회 김갑봉 회장

“한 의사들을 위한 법적 제도 확충 위해 노력”

올해로 4년째 가주한의사협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갑봉 회장은(사진)은 오랜 세월동안 한의사로서의 다양한 권리를 미국법으로 인정받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큰 역할을 감당해 왔다.

김 회장은 “한의학은 유구한 역사와 우수성을 지녔지만 법과 제도의 미비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며 “저변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많은 한의사들을 위해 법적 제도가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특히 올 11월에 있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 후보인 제리브라운 주 검찰총장 지지를 위한 선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서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제리브라운 검찰총장은 주지사 시절이던 1978년 침의 효력을 경험한 후 한의사들도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한의사 보드를 창설하기도 했다.

한의학계에서 '동양의학의 대부'라고 불리우고 있는 브라운 검찰총장은 작년 연말에 열린 협회 송년모임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본인이 주지사로 당선되면 동양의학의 전통과 의학의 근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한의사들의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브라운 후보가 주지사로 당선만 된다면 한의사들의 입지도 달라질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한의계 전체의 합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방은 비과학적?... 오랜 역사가 증명”

김 회장은 한의학이 양의학에 비해 근거가 부족하고 비과학적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서양 의학의 잣대로 한의학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가 있습니다.”

김 회장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라고 폄하한다”며 “이는 우리 민족이 수천년 동안 이용해왔던 의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양 의사들은 한의학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요구하지만 한의학은 눈에 보이는 세포를 기본 단위로 생명 현상을 분석하는 서양 의학과 다르다”고 말했다.

“근거에는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역사적 근거가 300년이 넘으면 과학

적 근거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하죠. 한의학의 역사는 우리 민족과 궤를 같이했습니다.”

◇“무분별한 건강식품 복용... 오히려 毒이 될 수도”

요즘 많은 한인들이 건강보조식품을 찾고 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가며 아침, 저녁으로 갖가지 영양제를 챙겨서 복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용성과 부작용에 대한 증명없이 마치 ‘처방이 필요없는 약’처럼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몸에 좋다고 해서 건강식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毒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먹는 건강 보조식품이 체질에 맞지 않아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김 회장은 “개개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와의 상담을 한 후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한인사회의 저변에서 묵묵히 베풀며 수고하는 한의사들이 많다”며 한의사들의 좋은 면모를 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앤디 기자 andie@raphamd.com



라파메디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꽃마을한방병원 황경식 이사장

창간 축하드립니다. 라파메디가 세계를 하나로 이어줄 의료정보 소통의 전령사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꽃마을 건강 지킴이!



LA 동국대학교 이명종 교수

의료포털 라파메디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인터넷상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한인들의 아픈 곳을 감싸줄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의료 콘텐츠의 보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연세척추신경병원 박현주 원장

미주 최초 의료뉴스 포털 '라파메디'의 오프라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에 목말라 있는 미주 한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매체가 탄생되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글로벌헬스케어협회 박인출 회장

300만 미주 한인 교민들을 위한 유익한 건강정보 전달을 위한 의료뉴스 포털 사이트가 오픈되다니 기대가 큼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의료관광 및 해외환자 유치 위한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로 허가를 받은 저희 (사)한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도 미국 교민 여러분들의 고향방문의 기회에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미주 한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독자들에게 유익한 건강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의료계와 독자들을 잇는 가교적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새롭게 시작하는 '라파메디'의 힘찬 출발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리스도 선교회 자넷 최 박사

은 인류에게 의료 선교의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 위해 런칭된 의료뉴스 포털 '라파메디'의 창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현인프로페셔널 김성도 대표

미국 최초 한국어 의료포털 사이트 라파메디의 오프라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현인프로페셔널 www.hyunn.com

웰빙척추병원 Chris Kim DC

정확한 의학정보 및 각종 질환의 최신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동포 사회의 건강길잡이가 되길 기원합니다. 한인 사회에 유익한 도움을 주는 꼭 필요한 신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강한피부과 강진수 대표원장

새롭게 시작하는 라파메디의 첫걸음에 힘찬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의료뉴스 포털 라파메디가 미주 한인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또 없어서는 안 될 빛이 되어 미주 한인사회를 밝히고 또한 세상을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미디어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신선하고 생생한 활력 넘치는 건강 정보와 소식으로 큰 만족을 주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라파메디의 지면을 통해 한국과 미국 의료업계의 활발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한인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라파메디의 무궁한 발전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한미장애인협회 피터 성 회장

의료포털 라파메디의 오프라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주 동포사회에 건강 정보를 알리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라파메디는 언론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떠나 독자를 위한 올바른 사실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나더러 신문 없는 정부를 택하겠느냐?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디 '라파메디'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동포들에게 아름다운 큰 빛을 밝히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귀사의 공정한 보도 활동이 미주 한인 동포들의 가슴에 와 닿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인한의원 제인정 원장

미주 한인들에게 유용한 의료 정보 및 양질의 의료 콘텐츠를 제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환자간의 상호 네트워크 구축이 활성화가 되길 바라며 라파메디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진생당 한의원 에스더 전 원장

미주최초 의료포털 라파메디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실질적이고 한인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소식을 전하는 최고의 의료정보 매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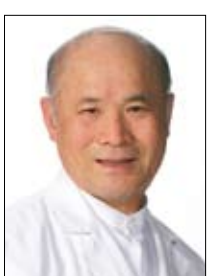
그린한방병원 크리스틴 조 원장

미주 최초의 의료 정보 네트워크인 라파메디 창간을 축하합니다. 라파메디를 통해 미주 한인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백보한의원 백형권 원장

건강한 영혼에 건강한 육체를 바라는 이 시대에 라파메디 창간과 더불어 신앙과 건강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신문이 되신 것을 대단히 환영하고 축하하는 바입니다.



나려여성전문한방병원 진승희 원장

무엇보다 한인들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21세기의 변화와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신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파메디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손치훈 한의원 손치훈 원장

옛말에 "약만 먹고 가만히 멧일 나누면 그냥 난다" 는 말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과다하게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난무하는 건강 식품과 영양 과다로 인해



던 병도 생기고 약을 먹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과 과대광고로 말미암아 정작 필요한 정보를 못 얻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라파메디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확한 의료 지식과 정보를 전하여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는 신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주에 꼭 없어서는 안 될 좋은 매거진을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Association of Korean Asian Medicine & Acupuncture of California

가주 한의사 협회(AKAMAC)

National Alliance of Korean Asian Medicine & Acupuncture of U.S.A.

전 미주 한의사 총 연합회 (NAKAMA)

- 1975년도 Acupuncture 주법통과, 가주 한의사 협회 창립
- 2003년도 전 미주 한의사 총 연합회 창립
- 현재 2700명의 한인 한의사들로 회원 구성
- 인류보건과 동양의학 특히 5000년 역사속의 우수한 한국의 전통 한의학 세계화에 노력
- 한의사들의 권리신장을 위한 제도화에 전력



※알림: 2010년 7월 14일부터 그 동안 교통 상해 환자들의 보험 커버에 대해 제한적 보험커버를 해 주었던 Farmers 보험사가 본 협회의 로비로 한의사들의 침 치료에 대해 전면 커버를 해주는 보험 규정을 수정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대민 무료 건강 검진 진료, 장학사업 추진.
- 한의학에 관련된 궁금증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213-382-4412 Fax: 213-382-4488
- 본 협회는 한의인 여러분의 협회 정회원 동참을 적극 환영 합니다

관련 정보는www.akamac.org의 홈페이지 '새가족 등록'으로 방문하세요.

가주 한의사협회 / 전 미주 한의사 총 연합회 회장 김갑봉

"의료 뉴스포털 라파메디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